

광주시 '자동차산업밸리 조성' 내년 본격화

전용산단 설계 30억·친환경 부품 35억 등 13개 분야에 국비·시비 등 214억원 투입

광주시가 내년부터 국비와 시비 214억 원을 투입해 '자동차 산업밸리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밸리 조성을 위한 내년 주요 예산은 모두 13개 분야로 국비 130억원, 시비 63억원, 민자 21억원 등 모두 214억원이다.

가장 핵심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반 조성 명목으로 확보한 국비 30억원은 자동차 전용 산단 설계에 활용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조성중인 빛그린 산업단지는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국토부 승인을 받

아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물리적·공간적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또 수소·전기자동차 융합충전 스테이션 실증에 확보한 20억원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증·인증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한다.

친환경자동차의 핵심 콘텐츠인 경량화를 위한 초경량 고강성 차체사시 부품개발 사업(25억원)은 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업체들의 고부가가치화와 사업 영역 다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부품산업 육성(35억원) 등을 위한 국비도 사업 추진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영세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자동차 부품업체 역량 강화 지원사업, 지역주도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부품기업 예로 기술 해결지원사업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 서비스와 전문인력 양성 등 역량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완성차 유지, 부품산업 육성, 친환경 생산 모델 등 연계 전략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광주형 일자리와 파격적 지원을 통해 완성차와 부품업체 간 집적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출 목적 부품산업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전국적으로 4600억원의 부가가치와 1만1000여명의 고용창출, 지역적으로 2300억원의 부가가치와 7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노·사·민·정 협력으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이 뿌리를 내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해외시장 개척

호주·싱가포르 상대

180만달러 수출계약

광주시는 호주와 싱가포르 등 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펼쳐 수출계약 18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광주 중소기업 9개사가 참여해 펼친 이번 해외시장 개척활동 결과 1100만 달러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42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도 올렸다.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쓰레기수거 트럭, 복합PP, 과수용 스피드 스프레이어, 노면청소기(마당쇠), 미용 제품 등의 해외 판로를 개척했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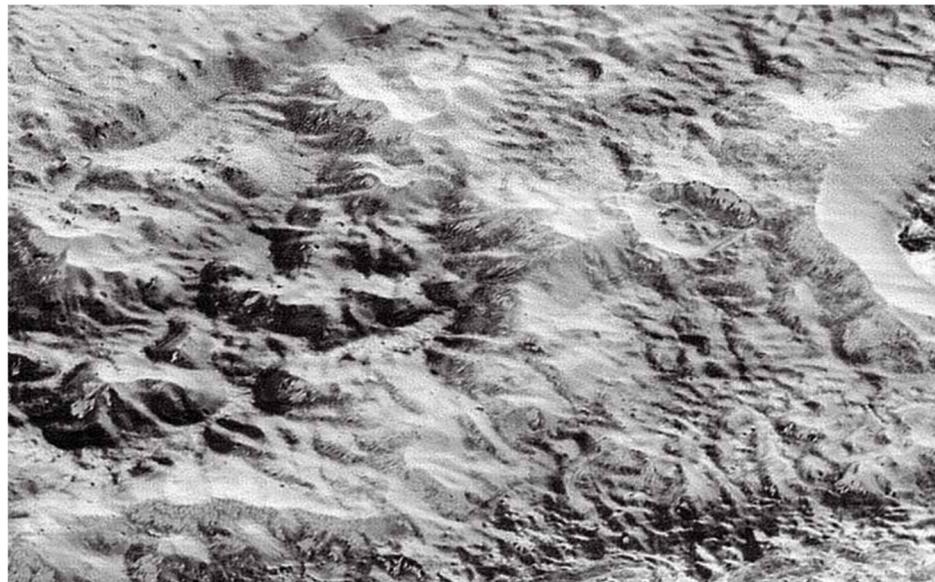
광주시는 개별 방문이나 단체 상담 활동 등을 통해 바이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전시회에 초대받거나 구매계약을 위한 면담 약속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석호 광주시 기업육성과장은 "아시아 대양주는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잠재력이 큰 거대 시장"이라며 "광주만의 제조기술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마케팅과 함께 진성 바이어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 총 44개사의 지역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총 5회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펼쳐 2억3000만 달러의 수출상담과 5517만 달러의 MOU를 체결했다.

광주시는 내년에는 중남미,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까지 총 6회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NASA 우주탐사선이 촬영한 명왕성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무인 우주탐사선 뉴호라이즌스가 촬영한 명왕성의 초근접 고해상도 사진을 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NASA 제공>

광주시 올 29건, 4200억대 투자유치 협약 체결

국내 23개·국외 6개 기업 ... 투자 성사 여부 관심

광주시가 올해 4200억대 규모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해 투자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국외 6개(940억원), 국내 23개(3283억원) 기업과 모두 4223억대 투자유치 협약을 했다. 이 가운데 13건은 투자로 이어졌고 15건은 준비 중, 1건은 무산됐다.

포워드벤처스(쿠팡), LS산전과의 투자협약이 각각 600억원 규모로 가장 컸다. 고

용 예상 인원은 각각 1000명, 100명이다.

쿠팡 물류기지 건립을 위한 부지계약이 준비 중이며, LS산전은 남구 도시철도 산업단지 조성 후 투자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세방산업은 52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으며, 현대자동차는 500억원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다.

고용계획 인원이 1325명으로 가장 많은 대유위니아(485억원), 대호전기(300억원),

지금강(200억원), 프리미어(100억원) 등도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시는 올해 모두 16건의 업무 제휴·협약도 했다. 1건은 사업이 종료됐으며 14건은 진행, 1건은 준비 중이다.

주요 협약 사업은 아시아-유럽재단(ASEF)과 협력,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광주신세계), 누문 뉴스테이 사업(국토부 등),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공동이용(한전 등), 융합스테이션 구축 공동추진(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인권선언기념일 행사 다채

인권작품 표어·포스터 전시

인권마을 사업결과 발표도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0일)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광주시는 12월 한달간을 기념기간으로 정하고 인권작품 전시, 인권마을 사업 결과 발표 등 행사를 준비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7~13일에는 제1~3회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표어, 포스터,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60여 편을 시민문화관에서 전시한다.

오는 10일 오후 3시에는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세계인권선언 제67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 광주인권

사무소, 광주인권회의,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주최하는 기념식에는 공연, 인권선언 낭독, 인권 릴레이 등이 이어진다.

오는 11일에는 시민숲에서 8개 인권마을이 올해 사업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17일에는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제1기 광주인권도시 기본계획 이행평가 토론회가 진행된다.

시는 18일에는 무등홀에서 인권교육센터 '활짝'과 함께 '차별, 차별시선으로 다시보기'를 주제로 영화 상영, 인권 감수성 토크를 진행한다.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에 퍼진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문화기반시설 8개 특별·광역시중 6위 ... 확충 시급"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 제기

광주 문화수도로 발돋움하려면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이 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지난해 전국 8개 특별·광역시 문화기반시설 현황자료'를 보면 광주의 문화기반시설은 모두 54곳으로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세 번째로 적었다.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수는 서울이 34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천(88곳) ▲부산(79곳), ▲대구(66곳) ▲대전(54곳) ▲울산(40곳) ▲세종(10곳) 등 순이다.

광주는 질적 평가의 척도가 되는 인

구 대비 문화시설 수에서도 비교 대상 중 3위에 그쳤다. 인구 1만명당 문화시설 수는 지난 2013년 기준 8개 특별·광역시 중 계획도시 세종시(0.65)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0.35곳) ▲광주(0.34곳) ▲서울(0.32곳) 등의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1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동구(13곳) ▲서구·남구(9곳) ▲광산구(7곳) 순으로 분석됐다.

5개 자치구의 인구 1만명당 문화시설 수는 동구(1.36곳), 북구(0.34곳), 남구(0.32곳)가 광주시 전체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서구(0.25곳)와 광산구(0.15곳)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낙연 전남지사 오늘 중국 방문

10일까지 산시성·장시성

이낙연 전남지사가 7일부터 나흘간 전통적 국제 우호교류 지역인 중국 산시성과 장시성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 지사는 8일 산시성 타이위안시에서 왕루린 당서기, 리샤오핑 성장과 각각 별도의 회담을 갖고 관광 교류와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두 지역 관심사를 협의할 예정이다.

산시성에는 한국전력이 성정부와 합작으로 운영하는 발전소와 탄광이 있으며, 이 지사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의 에

너지산업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이어 10일 장시성 난창을 방문해 루신서 성장을 만나 농업기술과 통합의학, 도자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시성은 저장성과 함께 전남도가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



ICL(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정체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미엘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인



밝은광주안과